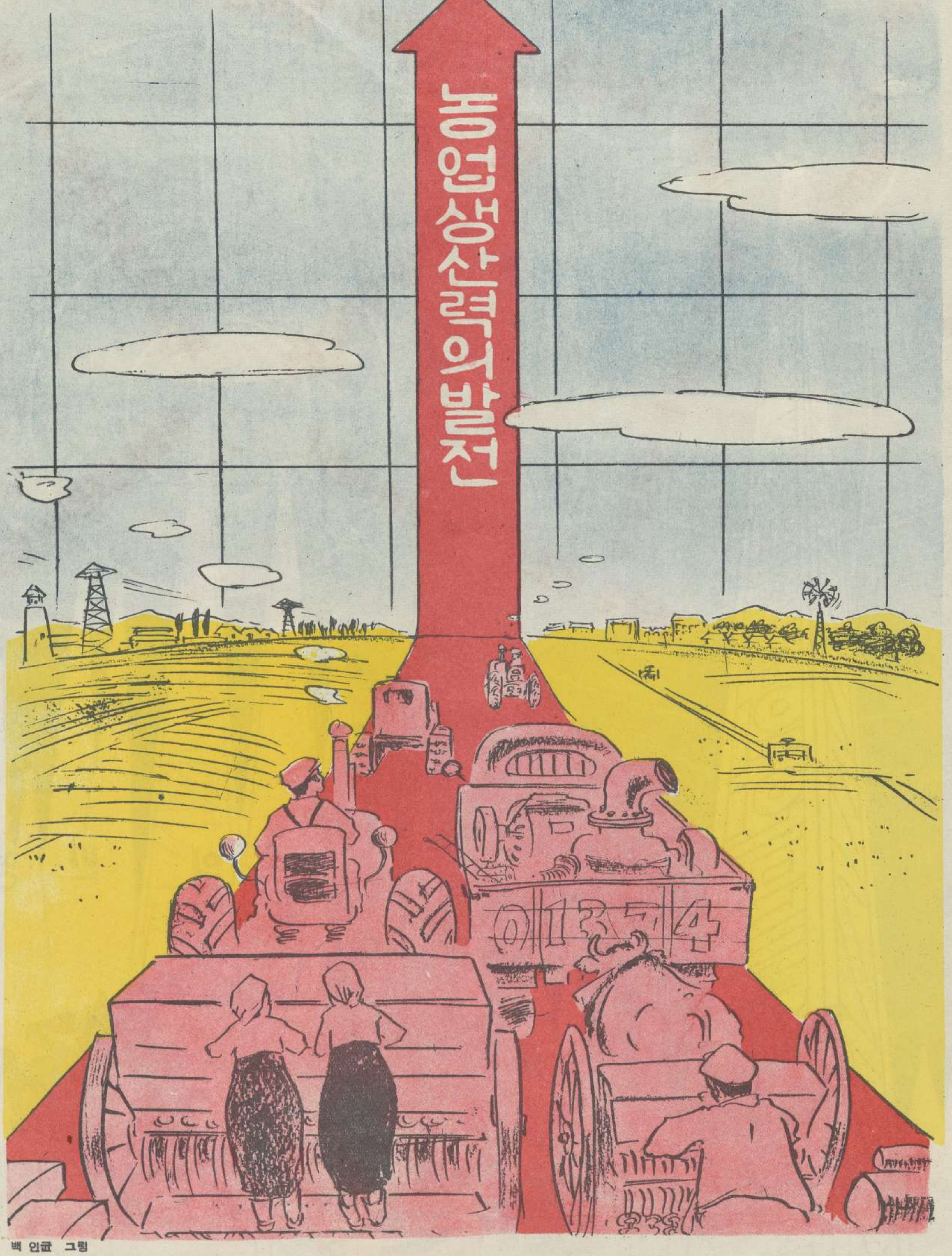
3 - AUG - 9
Copy 1960

농촌 기계화의 대렬은 커간다.



백 인균 그림

《기계가 있어야지》

함남도 인민 위원회 관개 수리 건설 국장 동지는 기계의 리용률을 높여 작업 실적을 올리고 로력을 절약하려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해서는 그리 생각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계들이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기계들을 잘 배합하여 배치하지 않고 여기 저기 널려 놓았다. 때문에 엑쓰까와똘들은 흙을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가 모자라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얼마 일을 못했다.

《여보, 자네들 신세가 부럽네》

엑쓰까와똘 운전수가 화물 자동차 운전수에게 하는 말이다.

《자네들은 저렇게 300%씩 하는데 우린 40% 밖에 못하니!》

기계들을 고려 없이 배치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직 그런 기계가 필요 없어 가져다 놓고는 쓰지 않고 있는가 하면 필요한 데서는 기계가 없어서 안달아 돌아간다. 그래서 사업소들에서는 자꾸 기계들을 달라고 제기한다. 사실 홍원군 관개 수리 사업소에서는 벨트 콤베아를 6~7개월이나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국장은 (보냈으니 아마 리용하고 있겠지) 생각하며 대답하였다.

《지금 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소》

그러나 사업소들에서는 곤난한 조건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국장은

《지금 놀고 있는 기계가 어디 있겠소, 기계가 모자라 그러는 판에》하고 밀막아 놓는다.

그리고는 혼자 두덜댄다.

《젠장, 기계가 있어야 일을 해 먹지》

그러나 없다고 걱정하는 기계는 리용률이 극히 낮다. 보수 정비를 잘 안해서 고장도 자주 나지만 또 부속품의 예비를 준비해 두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운전수들이 몇번 기계화 사업소에로 나가서 선반에다 부속품을 깎아 가지고 와서야 기계를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9월 동안만 해도 기계들이 고장으로 일 못한 시간만 해서 27%나 되였다. 그러나 국장은 여전히 입 버릇처럼 외인다.

《로력을 절약 할래도 기계가 있어야지》

까소링까나 벨트 콤베아는 리용하지 않거나 적게 리용하고 있는 작업장들이 많았다.

그리고 까소링까 선을 엑쓰까와똘 있는 데까지 연장하여 엑쓰까와똘로 퍼담는다면 까소링까에 퍼담는 로력도 해결되고 위력 있는 엑쓰까와똘이나 까소링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900명의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엑쓰까와똘은 쉬고, 삽으로 한삽 두삽 퍼담거나 까소링까를 둬두고 밀차로 흙을 나르고 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는 능률을 내지 못하였다. 거기에다 기계 정비 보수를 안해 뒀기 때문에 까소링까나 벨트 콤베아는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흙을 퍼담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까소링까 고칠 때까지 저기 가서 밀차래도 밉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딴 작업 장소로 간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기계가 돌아간다니 또 기계 있는 데로 갑시다》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작업 장소를 옮기다 나니 일할 시간은 얼마 없고 작업 능률은 안오른다.

이럴때마다 관개 수리 건설 국장은 또 걱정한다.

《젠장, 기계가 있어야지》 리 윤봉

--왜 생산이 안오를가?

송 용남 그림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기능 로동자들을 비 생산부문으로 배치하여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

실속 없는 옷차림

일부 지도 일'군들은 회의에서 회의로, 문서에서 문서로 맴돌며 다사 분주하나 실속없이 일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놀게 된 땅의 래력

안변군 치교도 남천리 조합은 경지 면적이 지나치게 많은게 탈이야……

그래도 땅을 《사랑하는》 관리 일'군의《량 심》으로 그렇게 속수 무책일 법이야 있나… 이런 자찬 자과에서 흥이 난 조합 관리 위원장은 심경, 밀식, 다비,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 할 수록 문전옥답에만 정신이 쏠리였다. 이것만 가지고라도 《집약 농법》을 《대담》하게 실시한다면야 작년 소출의 곱절은 문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그의 결심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영농 기술에 근거를 둔 것 같고 현실적 력량을 《심중성》있게 고려한 것만 같았다.

《대사를 위해서는 소사를 희생시키는 원칙도 있거니와 내가 짐작하는 《계획》은 이 원칙에 꼭 들어 맞는단 말이야……》

이런 주장을 세우게 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관리 위원회를 통과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실천》에 옮기는 데 서둘렀다.

우선 린접 부락에 있는 구호원을 위해서 땅마지기나 선사를 하고 다음 문제들이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천, 하남, 중남 지구 6정보의 밭들과 연산봉과 수재봉 기슭에 자리 잡은 70정보의 과수 적지들은 1959년도 부터 몽땅 《장기 휴가》에 넘어가 편안한 휴식을 하게 되였다.

농번기가 닥쳐오고 조합에서는 벅작 끓기 시작하는 때였다.

남천리 조합에서는 또 새로운 생활에로 비약하는 단계에로 넘어 서게 되였다.

이때 군에서는 《위신》있는 간부들이 남천리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전 군 인민 위원장이였든 리 호욱은 남천리 집중 건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면서 호통을 빼기 시작했다.

《서곡 지구에서 그래도 남천리가 선참 문화 농촌으로 전변되는 판인데 좋은 옥토에다 문화 주택들을 지어야 할 것은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아닌가?》

《… 아닙니다. 위원장 동지, 풍치 좋고 전조한 맹골 등판이나 아래'골 산기슭이 오히려 경제 문화적 의의가 더 큰것 같습니다》

어떤 조합원들의 이러한 건설적 의견도 있었으나 책임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간부》들 앞에서 그런 문제가 날이 설 리 만무였다.

70정보의 과수 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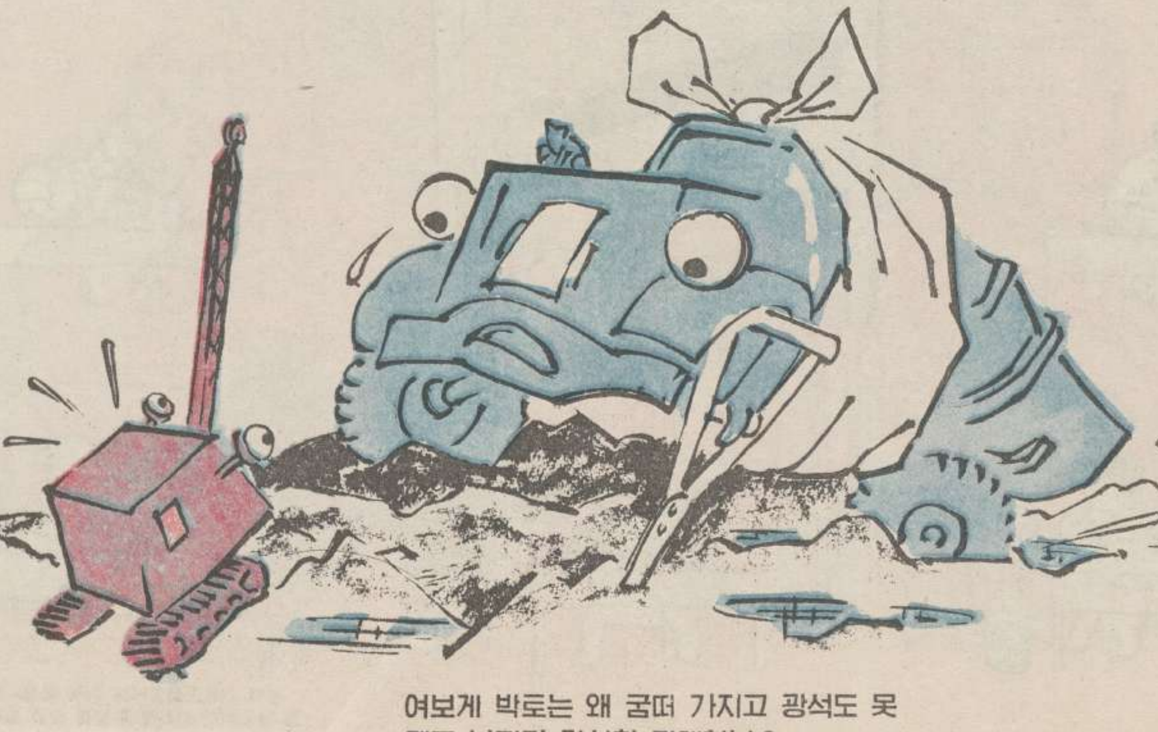
남천리 복판 문전 옥토에는 30 여동의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즐지여 일어서고 연 3000여 공수의 조합 로력이 문화 농촌 건설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리 권순 동무의 《창발성》과 남천리의 《특수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세워진 조합의 생산 계획과 전망 계획이 어쩔 수 없이 비끄러매지는 수 밖에 없었고 세월은 흘러 벌써 남천 조합의 일년 농사를 결속짓는 마감 단계에 들어 서고야 말았다. 그러나 《장기휴가》를 받은 땅, 건설 대지로 람용된 땅등에서 만도 적지 않은 량곡을 잃어 버렸으니 이것을 결산 해서 어느 콘트에다 넣어야 한단 말인가?

서 득창

박토가 선행되지 못한 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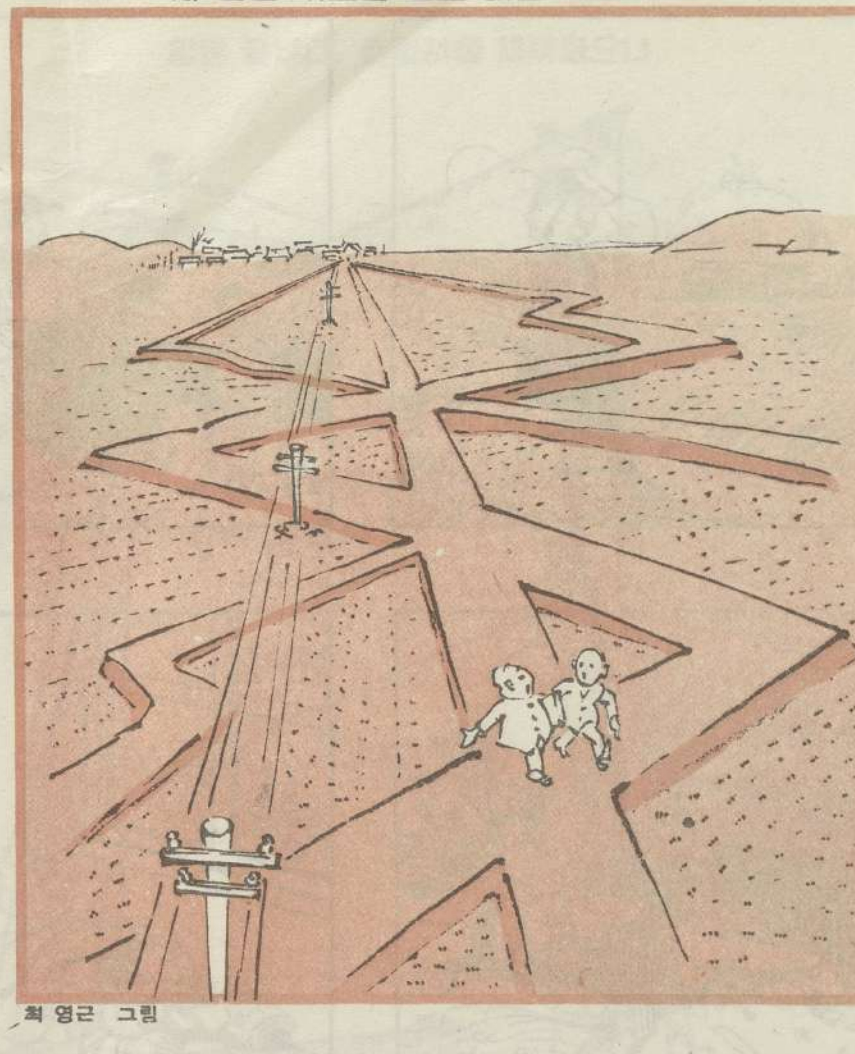
협산 광산에서는 3개월 이상 박토 작업이 채광에 선행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토가 굼뜬 결과 채광에는 물론 광석 수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여보게 박토는 왜 굼떠 가지고 광석도 못 캐고 나까지 만신창 되게하나?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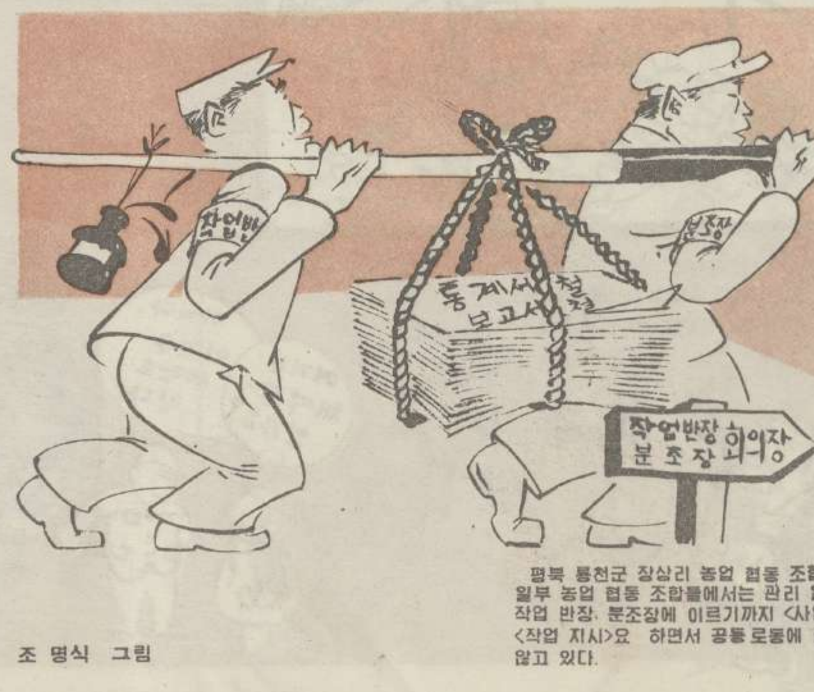
새 길을 냈으면 필요 없는 길은 없애자 !



최 영근 그림

황주군 8. 15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새 도로를 건설한 후 낡은 도로는 기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평수의 구 도로를 그냥 놔두고 있다.

작업장으로 나간다.



조 명식 그림

평북 룡천군 장상리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관리 일'군은 물론 작업 반장, 분조장에 이르기까지 〈사업 토의〉요 〈작업 지시〉요 하면서 공동 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있다.

두 현상

김 성엽 그림

《정당》한 리유

사리원 시장 농산물 상점일군들은 위생 문화 사업에 아주 무관심하다. 심지어 상점내에 비치하여야 할 휴지통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상점내에는 휴지와 먼지로 가득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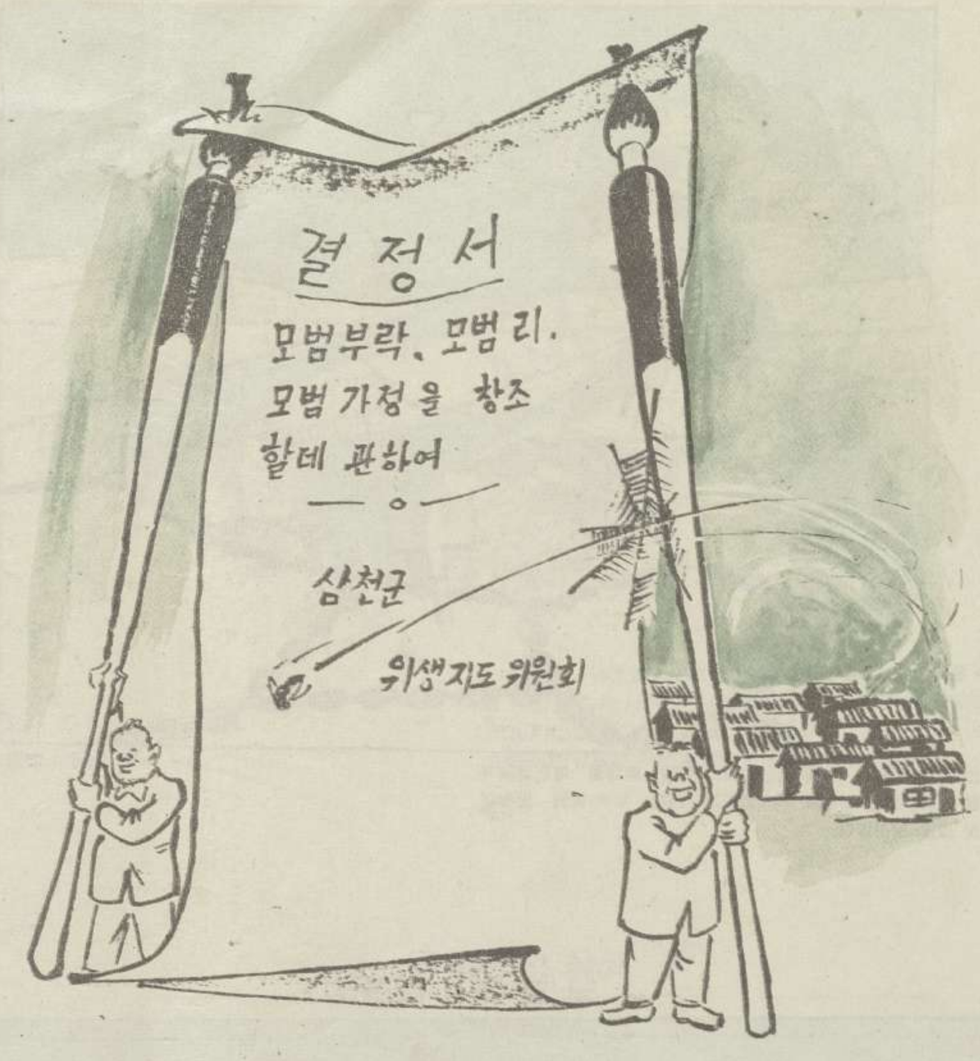
강계 역에는 귀중한 세멘트가 근 30 여 톤이나 응고되여 못쓰게 되여 있다. 역 일'군의 말에 의하면 강계 방직 기계 제작소와 자강도 자재 수급소에서 하차한 세멘트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최 영근 그림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합시다

김 동철 그림

일은 끝났다. 결정서를 채택했으니



황해남도 삼천군 위생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매우 무관심하며 협의회에서 결정을 채택하는 데 그치고 아무도 이 사업을 추진시키지 않고 있다.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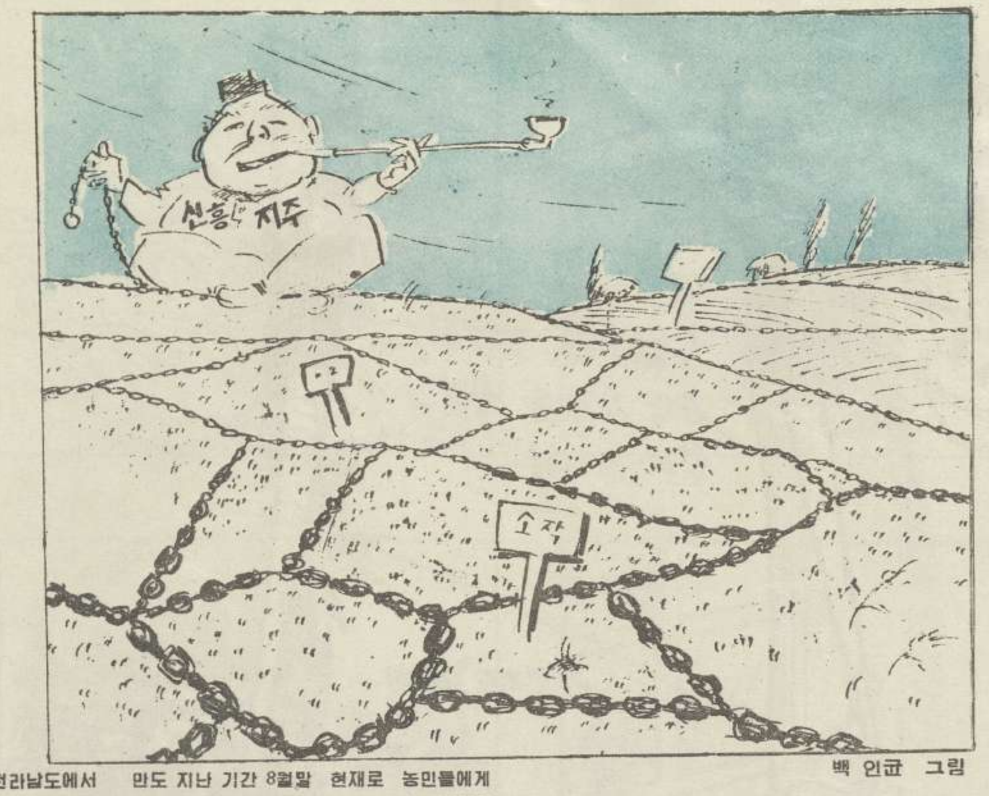
싸래기 제조기인가?

백 인균 그림

예방이 없는 곳에서

조 명식 그림

손아귀에 집중되였다



전라남도에서 만도 지난 기간 8월말 현재로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되였던 농토의 50%정도가 《신흥 지주》들에 의하여 이미 겸병 당하였다.

백 인균 그림

낫 쓸 데가 달라졌다

 백 인균 그림

속수 무책

신 홍순

《에—또,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아니라…》

면장은 군중들을 휘— 둘러 보고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 도지사께서 우리 면에 오시게 되였기 때문에 긴급히 도로 수리를 해야겠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져선 안되오, 만약시 그 전처럼 요리 피탈 조리 피탈 하고 부역에 안 나오는 사람은 불문 곡직하고 엄중 처벌을 할 작정이니까 그리 아쇼, 그럼 빨리 조반들을 먹고 삽장이나 가래 또는 질통들을 가지고 저 방아'간 앞으로 모이쇼!》

《아니 길은 저번에 다 닦았는데 무엇을 또 닦는단 말요?》

김 로인이 물었다.

《귀하신 분이 행차를 하시니까 행길에다 가는 황토를 펴야겠구, 그리구 도지사님이 혹시 우리 집에 들리실지도 모르니까 그길도 자동차가 댕기게끔 훤히 닦아야 되겠단 말요》

《지금 우리 리재민으로 말하면 당장 조석거리가 없고 몸에 걸친 천 쪼박 하나 없이 한데서 잠을 자는 형편인데 이걸 구호해 줄 대책은 안허구 부역만 나오라니 도모지 이게 무슨 처삽니까?》

군중들은 옳다는 듯이 웅성댄다.

《떠들지들 마오! 이번에 도지사님이 이리루 오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거요, 다시 말하면 리재민들의 생활 형편을 돌보려 오신단 말이요》

이렇게 하여 큰 행길에 황토도 펴고 면장네 집으로 들어 가는 길까지 훤하게 닦아 놓았다.

아닌게 아니라 사흘후에 도지사가 자동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갔다.

사실상 도지사가 이 지방에 온 것은 리재민들의 형편을 보려 온 것이 아니라 이 부락에서 삼십리 가량 떨어져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 풍수해 정황을 돌아 보려 왔던 것이다.

면장은 길 목에서 진종일 기다리다가 저녁때나 되여 돌아 가는 도지사의 자동차를 멈추어 놓고

《도지사님, 지금 리재민들이 도지사님을 뵈옵겠다고 모여들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자 도지사는 신경질적으로 《나를 왜?》하며 쏘아 부친다.

《도지사님이 오시면 리재민에 대해서도 무슨 좋은 말씀이 계실거라구 모두 기대를 걸구서…》.

《누가 그따우 조직을 했어? 어? 더구나 이 지방 백성들은 걸핏하면 신소니 진정이니 항의니 허구 들구 일어 나기 잘허는 놈들인데 그 앞에다 날 내세워 놓구 무슨 짓을 헐라구? 면장으로서 그만 것도 모르는가?》

면장은 연신 허리만 굽실댄다.

《면장! 내 말대로 해! 나는 바쁜 일이 있어 만나 보지 못하는게 심히 유감이란 뜻을 전하고 그 대신 무엇이든지 요구 조건들을 제기한다면 다 해결해 주마고 해.

그래 가지군 그 제기된 문제들을 일일이 내게 보고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면장이 머리를 처들어 인사할 사이도 없이 자동차는 달아났다.

《여러분, 도지사님은 긴급한 용건이 있어 거냥 돌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제기만 허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소. 그러니 무슨 문제든지 어려워 말고 다 제기해 보슈》

면장은 사방을 둘러본다.

《말이 그렇지 언젠 요구를 안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도지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아무리기루 한 도의 살림을 맡아 보는 어룬으로서 일구 이언을 하겠소?》

《밑져야 본전이니 그럼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 당장 때식 끓일게 없으니 쌀을 주어야겠습니다. 그렇잖으면 떼송장이 나요》

《쌀이라》 면장은 수첩에다 적고는 《그리구 또?》

군중을 돌아 본다.

《엄동 설한은 닥쳐 오는데 모두가 알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달라, 그리구 또?》

《움막이라도 있어야 하겠으니 하다못해 서까래감이라도 국유림에 가서 베여 쓰도록 해 주시우》

《음, 목재 문제, 그리구?》

《논밭 전지가 다 떠내려 갔는 데도 토지 상환곡이니 수득세니 허구 벌써 세금 독촉이 여간 아닌데 실태를 조사 해서 면제해 줄 건 아예 성가시게 굴지 않게끔 해 주십쇼》

《세금 면제라, 어서 다 말해 보쇼》

《어린 학생애들이 요즘두 맨발루 통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을가요?》

《음, 그리구 또?》

《내가 한가지 제기하겠소》

김 로인이 나섰다.

《들자니까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리재민들을 구호해 주기 위해서 백미 3만석에 옷감이 백만마, 신발이 10만 켤레, 게다가 집까지 지으라고 세멘트 10만 포대에 백오십만재의 집재목까지 무상으로 보내 주겠다는데 어째서 그걸 안 받아 오는 겁니까?》 《뭐이? 아니 누가 그따우 소릴 퍼뜨려? 령감은 어디서 들었소?》

《지금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그러시우》

군중들 속에서 《옳시다》

《받아다 주시오!》 하고 웨친다.

《그 동포애에 끓어 넘치는 원호 물자를 시급히 받아다 줄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면장은 수첩을 집어 넣으며 《네, 모두 제기해 보죠》 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떴다.

그후 한 일주일 지나서 도지사의 명의로 《신소 답안지》가 수십장 왔는데 그 내용이 걸작이다.

그것은 미리 등사를 해 두었던 똑 같은 답안지로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씌여져 있다.

《정부 예산 관계상 곤난함》

두 가지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똑 같은 내용의 《답안지》가 두장씩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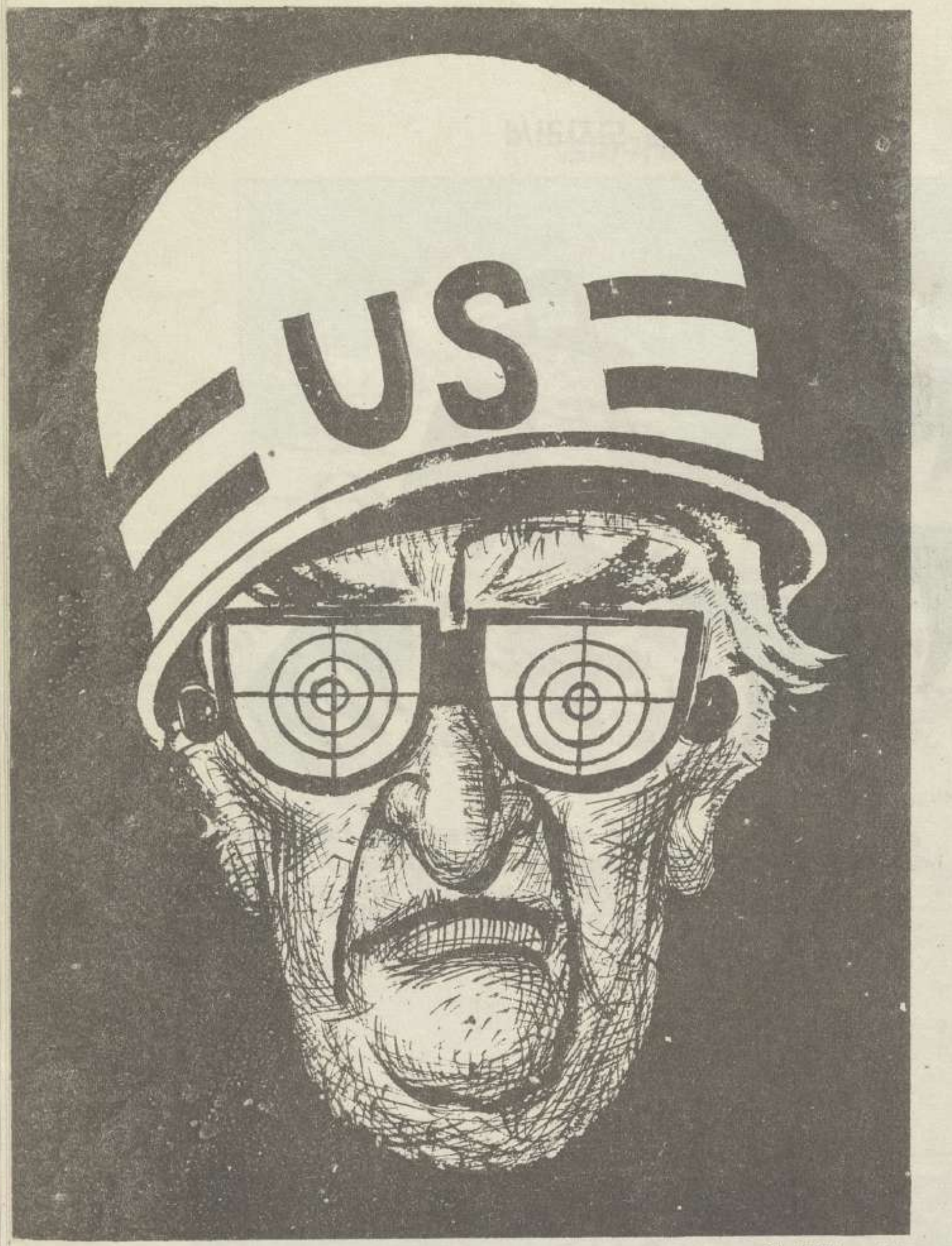
두 발 가지고는 모자라서

최 영근 그림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산업 발전 본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다. 《산업 발전 본부》는 미제가 작년에 설치한 《경제 개발 위원회》의 경제적 략탈 활동을 보조하는 기구인 것이다.

두 글자의 상징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장 현채 그림



허 능택 그림

살인귀들의 눈

살인귀들의 키스

허 능택 그림

감출 수 없는 흔적

리 영춘 -그림

남조선에는 현존 학교의 부족되는 교실 수만 하여도 무려 3만 8천 여 개에 달하고 있는바 야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

로천 수업

조 영식 그림

버섯 따기

금년도 남조선 각급 학교의 <공납금> 기준액을 보면 <중학교> 7만 8천 2백환, <고등 학교> 8만 7천 7백환, <대학>은 14만 2천 4백환인바 여기에 기타 잡부금까지 합치면 더 많은 금액으로 된다.

불'길은 타오른다

백 인규 그림

《운수 나쁜 날》

김 오준

《오라는 딸은 안오고 외통 며느리만 온다》드니 조그만 가게방에 아침부터 세리(세금을 받는 관리)들만 꼬리를 물고 들이 닥쳤다. 물 안나오는 《수도세》와 불 못보는 《전기세》 그리고 무엇 무엇해서… 주인 강씨는 한나절을 물리고 부대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가게방에 사람 들어서는것이 끔찍하였다.

그런데 또 문소리가 나면서

《주인 계시우?》하는 사내 목소리가 들렸다.

(이크! 또 세금 받으려 오나?…)

강씨는 가슴이 두군거렸다.

가만이 문구멍으로 내다 보니 웬 중년 양복쟁이가 가방을 끼고 가게방에 들어 서는데 첫 눈에 그 가방이 꺼름칙 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세금을 내라겠노?) 강씨는 이번에야 말로 여차하면 뒤'문으로 빠져 나갈 차비였다. 《주인 안 계시우?》 사나이 목소리는 아까보다 좀 더 높았다.

《……》

《 어데를 나갔나? 가게를 이렇게 비여 놓구…》 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드니 잠시 그냥 서성거리다가 그냥 돌아 나가 버리고 말았다.

정작 그 사람이 돌아 나가고 보니 강씨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괜히 쓸데 없는 생각을 해 가지구 파자한 잎이라두 팔걸 못 팔았나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후회가 났다. 그 후회는 차츰 분한 마음으로, 그것은 다시 자기에게 대한 원망으로 변했다. 그래서

(어떻든지 다음에는 나가 보리라)—이렇게 속다짐을 하였다.

《있소—?》 이 때 문소리와 함께 또 한 손님이 들어 섰다. 얼핏 일어서 내다 보니 새파랗게 젊은 손님이다.

《네? 어서 들어 오세유》 강씨는 바쁜 걸음으로 가게에 내려 섰다.

《무엇을 드릴가요?》 강씨는 상냥한 목소리로물었다.

청년은 호주머니에서 종이 쪼박을 꺼내드니

《세금을 받으러 왔소》 하고 강씨에게 내주었다.

《예??》—강씨는 정신이 뗑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오늘은 운수가 사나울가?…강씨의 놀라움은 점차로 악으로 변하였다.

《여보! 세금은 또 무슨 세금이요?》

《흥, 그럼 세금두 안물구 해먹을테야? 뻔뻔스럽게…》 세금 받는 관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강씨를 노려 보았다.

《세금을 왜 안물어? 이 달에만 해두 수십 종이나 물었는데…》

《허지만 우리 세금은 안물었단 말이야. 언제 나한테 세금을 물었어?》

《아—니 세금은 대관절 무슨 세금이요?》

《흥, 우리 세금은 말이야 에—또 〈영업세〉란 말이야 〈영업세〉—》

《〈영업세—?〉 〈영업세〉야 벌써 다 물었는데 또 무슨 〈영업세〉야?》

《나쁜년놈들이 있어 가지구 탈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젠 세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단 말이야, 그래 집에서두 이것만 물면 래년 여름까진 세금 안물어도 좋아》

《아이구, 난 그런건 또 머리에 털 돋은 이후 처음이요, 세상 천하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흥—그래 못내겠단 말인가?》

《못내겠소》

《못내겠다—? 좋아 어디 보자》

세금 받는 관리는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다. 얼마 후강씨는 경찰서에 호출되여 《납세 기피자》로 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을 반대한다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뒤집어 쓰게 되였다. 강씨는 그래서 호되게 얻어 맞았다. 해 안으로 세금을 마련해 놓을 것을 다짐하고 겨우 놓여 나왔다.

그날 저녁 강씨는 가만이 앉아서 생각해 보았다. 생각할 수록 《행여나?》하는 생각으로 뛰여 나간 자기의 경솔한 행동이 밉살머리스러웠다. 어쩌면 오늘처럼 운수 나쁜 날도 있을가— 자기의 박복을 원망하던 그는 드디어 깨닫았다.

미국놈들과 리 승만 역도들의 학정이 계속 되는 한 이런 참담한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최 영근 그림

야수들의 흥정

리 승만 도배는 최근 또 다시 명년 6월까지 1,154명의 남조선 고아들을 어린 노예로 팔아 넘길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개인 및 단체들과의 《개별적 수속》을 추진시키고 있다.

하나의 념원

최고 인민회의 제 2기 6차 회의에서 다시금 제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도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 광범히 침투 되면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 시업 그림

마술

리 승만 괴뢰군 고위 장교들은 병사들의 급식용 공급 물자의 60%나 횡령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투쟁의 불'길

허 능택 그림

내무장관—보… 보고 대통령 각하, 한국 경찰로는 모자랍니다. 미군의 후원이 없이는……

리 승만—이 머저리, 또 후원이야, 어서 당장 나가 저 소리를 막아라, 막아…

미제의 사환'군

홍 종호 그림

침략자의 운명

송 용남 그림

송장을 더는 뒤 둘 수 없다

어째서 반동적 중국의 시체인 장개석 도당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유엔에서도 모든 인민들이 송장을 취급하듯이 행동할 때가 이미 오래 전에 성숙되였다고 인정하는바 즉 이 송장을 밖으로 끌어 냄으로써 중국 인민의 진정한 대표가 유엔에서 자기의 합법적 의석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엔·에쓰· 흐루쑈브)

송 시엽 그림

가로 막을 수 없다

홍 종호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14932

발행 1959. 11. 23

(값40전)

백 인균 그림

부엉이—으악, 센 빛에 눈이 멀겠다.